

전북개발공사, 청렴도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상위'

청렴문화 정착 '결실 맺다'

“도민과 적극 소통 통해 한 발 더 다가갈 것”

전북개발공사의 청렴도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최상위 수준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등급을 획득해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없고, 2등급 2개 기관, 3등급 5개 기관, 4등급 7개 기관, 5등급 2개 기관이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8.77점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해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가 4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간의 청렴문화 정착 및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감질 근절 종합대책 이행, 적극행정 활성화 및 투명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재)전북은행행장문화재단은 1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호성보육원, 삼성휴먼빌 보호대상인 대학생들을 위한 자전거 전담식을 가졌다.

소외계층 대학생 위한 '희망나눔'

전은 장학문화재단, 호성보육원 등 보호대상 학생에 자전거 기증

이날 전담식에는 전북은행행장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호성보육원 나소양 원장, 삼성휴먼빌 김인숙 원장 등이 참석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대학생들에게 개인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열려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 전주시의 주요정책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만들기 동참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호성보육원의 김모 대학생은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기 무서워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따뜻한 선물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며 “전북은행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전북은행행장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국토부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경영인협회로부터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협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직원 채용 시 성별·학력·연령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인증서를 획득했다.

특히 공정채용 운영에 대한 의지와 프로세스 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관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강팔문 사장은 “투명한 인재 채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솔라파크코리아-전주배전대 지역산업수요 인력 양성 협약

전주비전대학교는 17일 (주)솔라파크코리아와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박창열 취업지원처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과 박현우 회장을 비롯해 신호선 상무, 유규상 이사, 박준범 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내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체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산학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등을 포함했다.

한편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솔라파크코리아는 지난 4년간 태양광 효과를 모뎀을 양산해 미국에 수출해 왔다. /김윤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기·화상사고 아동 의료비지원 사업인 '미리아, 힘내' 기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피해 아동에 의료비 지원

올해 수혜 대상 늘려 13명 아이들에게 4000만원 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1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기·화상사고 아동 의료비지원 사업인 '미리아, 힘내' 기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미리아, 힘내' 지원 사업은 전기재해로 인해 사고를 입은 어린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손잡고 펼쳐지고 있는 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미리아'는 전기사고를 미리미리 점검해 예방하는 의미로, '미어켓'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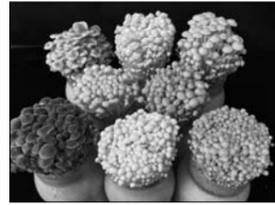
인화한 공사의 마스코트 이름이다.

공사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10명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비와 심리 회복을 위한 여행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그 수혜 대상을 늘려 모두 13명의 아이들에게 총 4,000만 원의 의료비를 후원할 예정이다.

조성완 사장은 “전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하루 빨리 건강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 전기안전을 위해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팽이버섯,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글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 함유량 · 뷰티유 요리에 잘 어울려 열량은 100g당 18Kcal로 낮은 편 · 식이섬유 6.2g도 들어있어 '플라몰린' 성분부터 자궁경부암 세포 등 항암 활성도 확인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환절기 기온 변화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맛과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까지 착한 식재료로 '팽이'를 추천했다.

팽이는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유통 수의 적은 나무에서 자라는 저온성 버섯으로, 대량 생산 전부터 신선미와 특유의 향미, 식감이 우수해 식용으로 널리 이용됐다.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단맛을 내는 알라닌, 글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탕과 찌개, 볶음류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린다. 열량은 100g당 18Kcal(상추 수준)로 낮은 편이며, 단백질은 2.4g(우유 수준), 식이섬유는 6.2g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식이섬유는 생것(3.7g)보다 열을 가했을 때 더 증가한다.

팽이에는 유용한 기능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항암효과가 있는 플라

몰린(flammulin) 성분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간암 세포(HepG2), 결장암 세포(HCT116), 자궁경부암 세포(HeLa) 등에 대한 항암 활성이 확인됐다.

또한,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1g당 11.63mg으로 다른 버섯보다 풍부하다. 가바는 저혈압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성분이다.

현재 국내 팽이 품종은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야생에서 많이 발

견되는 노란색, 갈색 팽이 대신 일본이 흰색 자원을 품종화했고 이것이 국내 시장에 많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국산 팽이 품종 보급률은 2010년 21%에서 2019년 29.4%로 8.4%p 늘었다. 농진청은 최근 개발한 흰색 '백승'과 황금색 '이탑'을 앞세워 2021년 보급률 33%를 목표로 품종 보급에 힘쓰고 있다.

흰색 '백승'은 균 활력이 좋고 버섯 발생이 다른 버섯보다 2~3일 빨라 농가에서 생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버섯으로 맛과 대의 모양이 균일해 상품성이 우수하다. 황금색 '이탑'은 머리가 매우 작고 반구형의 품종으로 대 아래까지 색이 밝아 기존 갈색 팽이보다 신선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환 버섯과장은 “맛과 영양을 갖추고 가격까지 저렴한 팽이로 겨울 식탁을 건강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국민연금, 2년 연속 동반성장위원장상 수상

중기 판로 지원 · 기술 보호 등 활동 인정받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공단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동반성장 확산에 적극 기여한 공공기관을 포상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그동안 임직원 후원금의 일부를 동반성장 기금으로 출연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 R&D 센터에서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오픈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내 소상공인의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연금이네 금요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1월에는 중기부에서 주관한 동반성장주

권 기념식에서 중기부 장관상을, 4월에는 전경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반납한 임원성과금 중 1600만 원을 창업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비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전북지역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KF-AD) 500박스(박스당 50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극복 '사회 공헌' 나서

국민연금, 덕진노인복지관에 마스크 등 후원물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7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전북지역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KF-AD) 500박스(박스당 50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에 기증된 마스크는 덕진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지역 내 6개 노인복지관(덕진, 금암, 안골, 꽃밭정리, 서원, 양지)에 배포돼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에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 14개 시·군 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 대상으로 김장김치(5kg) 310박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표사업으로는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공

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정책 지원, 지역 생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이 있다.

한편, 공단은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 일자리정책 지원, 지역 생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후원 물품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소재 업체에서 구매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으로서 전북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실험, 조합원 · 공제계약자에 마스크 460만장 무상 보급

실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실험)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해 지난 16일부터 전국 87개 조합을 통해 공제계약관계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94) 460만 장을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험은 전체 마스크 460만 장 중 260만 장을 오는 24일까지 1차 보급하고, 다음달까지 200만 장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실험은 보건용 마스크(K94) 무상 보급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공제계약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히 여부 하겠다는 뜻에서 마스크 무상 보급을 진행한다. /김윤성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올원뱅크 교통카드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이달 28일까지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에서 '올원뱅크 x 아이폰 교통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폰 교통카드' 서비스는 올원뱅크에서 지난 11일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로, 아이폰에 NFC 스티커를 부착해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폰8 이상 모델 사용 고객 중 올원뱅크에 계좌를 등록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2,000명을 추첨해 약 2만 원 상당의 아이폰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김윤성 기자